

옛말 연구 序說

沈 汝 澤

次 例

- | | |
|-----------------------|-----------------|
| I 옛말의 定義 | II 옛말의 範圍와 그 本質 |
| III 옛말과 神話 및 傳說과의 差異點 | IV 結 語 |

I 옛말의 定義

옛말 하면 흔히 常用되어온 우리 말이며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어린 時節의 로맨틱한 回憶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腦裏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

겨울의 긴 밤을 불이 이글거리는 질화로 가에 모여 앉는 사랑방에서나 제삿날 할머니나 집안 어른들이 들려주던 옛말들은 幼年期の 印象이나 經驗에 커다란 影響을 우리에게 안겨 준 것이다.

이렇게 幼年期の 情緒를 키워준 이 옛말이란 무엇인가에 對하여서는 이미 現代化된 成人의 社會에서 예외가 되어버린지가 무척 오래인 것 같다.

그러면 果然 옛말은 單純히 幼年期の 로맨틱한 映像에서만 그치고 말 것인가, 또 文明의 進展하는 그늘에서 옛말이 갖는 이미지나 그 價値觀은 점점 희박해지면서 永遠히 消滅되고 말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現實世界에서 絶對로 容納될 수 없는 何等의 쓸모 없는 것으로서 치우쳐 버릴 것인가, 특히 그 文學性的 存在意義까지도 無視해 버려야 할 것인가 하는 點들을 한번 고쳐 생각해야 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諸 問題點을 새삼스럽게 論議하려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口碑文學」 「훌륭한 民族詩」 등으로 이미 認定된 既存된 事實을 가지고 그 研究의 再評價를 確認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옛말이란 果然 무엇인가에 對하여 우선 說話文學 分類上에서 오는 諸問題點을 考察하여 옛말의 定義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면 過去의 主要論著 속에서 說話文學을 如何히 分類하였는가에 對해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小說 { 神話, 傳說, 說話
 小說

(趙 潤濟 著 國文學概說)

小説의 作品 { 上代說話
 民譚
 古代小説
 (李能雨 著 入門을 爲한 國文學概論)

散文文學 { 神話, 傳說, 說話
 (敘事文學)
 (李秉岐 著 國文學全史)

說 話 { 神話
 傳說
 古談
 童話
 寓話
 笑話
 雜說
 (周某 著 朝鮮文學史)

敘事文學 { 神話
 傳說
 民譚 (옛말 : 옛날이야기 · 民間說話)
 (張德順 著 國文學通說)

以上の通說에서 傍線部分을 볼 때 常用되어오는 用語가 일정치 않은 것은 內容上으로 보아 그 分類의 限界가 매우 모호한 것 같다. 여기에 對해서는 前述한 諸說 속에 大體로 說話, 民譚이라는 어휘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常用된 (民間)說話 또는 民譚이라는 어휘(用語)는 實은 유럽語 forktale(英) : Märchen(獨) : Volks märchen(獨) : Contepopulaire(佛)의 借用語彙이다. 다시 말해서 (folke)tale이나 Märchen 속에는 神話 : 妖精譚 : 傳說 : 寓話 : 笑話 등의 意味가 모두 包括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在來의 用語인 옛말과 달리 옛이야기(옛날이야기)에 該當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Tale(英)이나 Märchen(獨)에는 우리나라의 野談類를 聯想할 수 있는 作者의 創作이나 作爲가 加味되어 있는 것까지를 包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內容上으로 볼 때 民間에 口口傳承되는 淳朴性이 脫落된 것까지 包括한다. 口口傳承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近代化된 成人들의 赤裸한 世界가 展開되는 것이다. 그 授受關係까지도 어디까지가 成人 對 成人의 娛樂本位를 意味한다.

유럽語는 그 口口傳承되는 內容上의 淳朴性을 잃지 않은 民間의 tale이나 Märchen을 後代의

創作乃至作爲가 加味된 것과 區分하기 위해 民衆이랄까 民間이라는 修飾語를 붙여 folktale 이라는 複合名詞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用語의 範圍에는 前述한 바 神話, 傳說, 妖精譚, 寓話, 笑話 등의 이야기까지 內包되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folktale이나 Märchen은 우리 나라의 옛말보다 훨씬 그 範圍가 넓은 것이요, 따라서 그 譯語인 民譚은 옛말을 指稱하는 用語로 不適한 것이다.

이런 分類範圍의 差는 유럽諸國과 韓國의 文化의 差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그 差는 各各 다른 概念의 言語로써 表現된다. 유럽인의 分類範圍는 유럽인의 言語—folktale이나 Märchen 등으로 表現되고 韓國人の 分類範圍는 오랜 生活史 속에서 이루어진 韓國語로써 나타난다. 그것이 옛말, 옛날이야기라는 用語이다.

이런 점에서 純粹 國語인 用語를 쓰면 그 概念의 混亂을 일으킬 염려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이는 옛말과 옛날이야기의 概念을 明白히 引出해 내어 봄으로써 分明해지고 그 混亂을 막을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다.

그렇다고 옛말과 民譚을 全히 別個의 것으로 다루어 보자는 意圖는 아니다. 다만, 後世 作家들의 模創이다 作爲로 變形되지 않은 口口傳承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明白히 밝히기 爲해 (民間)說話나 民譚으로 그 用語를 使用했다면 굳이 常用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在來의 우리말이 있는데도 翻譯語를 쓸 必要가 조금치도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前述한 常用 어휘의 多樣性은 그대로의 그만한 理由나 說明이 붙어 따르는 것은 장르 分類上의 粗雜性을 招來할 것 같으며 繼承體系研究에 있어서도 그 個個의 用語가 가져오는 混亂이 招來됨은 두말 할 나위 없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混亂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說話라는 어휘를 廣義로 使用하고 옛말은 分類上 그 下位概念의 用語로 使用하고자 한다.

說話 속에는 人類學的인 面도 있고 民俗學的인 面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속에 包容되고 있는 文學性을 지금까지 論著를 基礎로 하여 再整理해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說話文學을 다음과 같이 再分類하여 整理해 보고자 한다.

說話文學	{	神話...	}	옛날(옛)이야기
		傳說...		
		옛말...		

說話文學에서 傳說과 神話部分은 지금까지의 論著의 諸說을 따르기로 하고 이 傳說과 神話部分을 除外한 餘他の 部分을 옛날이야기와 옛말이라 하고 그 옛말과 옛날이야기는 內容, 性質, 形式, 起源의 差異를 들어 嚴格히 區分되리라 믿는다.

前述에서 잠간 밝힌 바와 같이 옛날이야기와 옛말은 同意語가 되나, 옛날이야기는 成人 對 成人의 用語이며 이미 作家의 創作이나 作爲가 包含된, 文字上 定着된 野談類도 包括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說話文學 全般에 걸쳐 그 內容의 類似性이나 共通된 母題으로 미루어 그 줄거리의 信憑性的 有無에 差異가 있지만, 原始時代 말하자면 그 起源年代에는 嚴然한 장르의 分類는 없었다고 본다.

그러므로해서 옛말은 “옛날 옛적……”식으로 시작하는 興味本位의 이야기로서 純粹하게 民間에서 口傳되어온 것을 말하고, 옛날 이야기는 作者의 創作이나 作爲가 加味된 野談類까지 包含하는 것으로 規定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用語 使用에 混亂이 있는 것에 옛말과 童話가 있다. 옛말이 흔히 兒童을 對象으로 이야기 되기 때문에 옛말 곧 童話라고 理解하는 수가 많다.

옛말이 지금은 兒童을 對象으로 하여 이야기되고 있지만, 未開社會에서는 역시 對象은 兒童이 아니라, 成人이었다고 본다.

지금 그 對象이 兒童이라 하여 童話일 수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옛말이 지닌 內容으로 볼 때 결코 兒童을 對象으로 한 것이 아니다. 精神年令이 낮았던 狀況과 與件下에서 展開된 純粹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옛말이 지금처럼 教育을 目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지만 혹 옛말을 敎訓의인 것을 바탕으로 했다고 해도 모든 옛말을 아무리 成人部分을 除外한다 하더라도 童話로 取하기는 不適當한 것이다. 따라서 童話는 옛말의 享有層이 成人으로부터 兒童에게로 轉移된 데서 생겨난 말이요, 本來的인 옛말의 概念을 表現하는 말은 아니다. 童話는 옛말의 近來的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以上 옛말, 옛날이야기, 童話의 概念區分을 하였거니와 우리는 一見하여 옛말인지 童話인지 또는 옛날이야기인지 분간키 어려운 것을 가려내어 그 內容, 性質, 形式, 起源을 分析 檢討하여 純粹하고 淳朴한 옛말의 原形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옛말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對해서는 옛말의 範圍와 그 本質에서 仔細하게 說明하기로 한다.

Ⅱ 옛말과 神話 및 傳說과의 差異點

神話와 傳說 그리고 옛말 特히 傳說과 옛말은 野談이니 옛날이야기로 混用되어온 一般的인 慣習에서 볼 때 前述에서 밝힌대로 그 어휘들이 지닌 概念上的 뜻은 分明해졌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옛말과 傳說은 어떻게 區別되며 그 聯關된 類似性을 區分하며 어떤 差異點이 있는가를 밝히기로 한다.

原始民族이 어떤 모양으로 나라를 세웠는가 하는 開國事實은 神話로 이야기되고 있어 여기서 는 論外로 하고 옛말과 傳說만을 들어 說明하고자 한다.

傳說은 歷史的인 人物이나 山, 池, 沼, 樹, 石, 建物, 마을의 이름 또는 그 遺跡 等の 周邊

에 散在된 事物을 이야기로 엮어 그 歷史性이나 뚜렷한 固有名詞가 부쳐지고 있지만, 옛말은 이와 反對로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架空의인 이야기로 場所라던가 時代, 登場人物의 이름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크게 나눌 수 있는 特徵의 하나이다. 傳說是 이야기의 內容에 現實性을 부여하려는 요구에서 始作되어 聽者의 信仰을 갖게 하려는데 對하여 옛말은 모두 娛樂本位로 이야기가 되며 現實的인 아무런 부담이나 責任도 지지 않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다. 따라서 傳說是 叙事的 歷史性을 지닌 事實에 치우치는 이야기가 되는데 比해 옛말은 庶民의 淳朴溫厚한 叙事的 詩情을 풀어나가는 이야기가 되어 훌륭한 璞石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表現에 있어서 傳說是 具體的이며 簡明하고 옛말은 그 〈이야기군〉의 經驗을 通한 作爲가 다시 加味되어 될수 있는대로 즐겁게 그리고 어려운 낱말이라 할지라도 現實的인 問題와 譬諭하여 친절하게 說明한다. 그래서 共感을 주는 詩情을 傳達하는 結果를 가져온다.

그래서 옛말은 一定한 型을 이루어 表現되지만 傳說에는 無形式이다. 이런 表現은 옛말이나 傳說이 지니는 本質上的 差異 때문에 옛말은 그 自体로도 훌륭히 獨立할 수 있어도 傳說是 풍기는 色感이 모자라며 무엇인가 이미 알려진 것으로 異常한 것, 뜻밖의 것, 희귀한 것으로 信憑性을 갖도록 맺어져 있어 粗雜하며 거칠고 珍貴하게 表現되는 特徵이 있다. 다시 말하면 神話의 宗教面, 傳說의 特定(人物, 場所, 事物)한 面과의 結緣이 없는 옛말은 現實的으로 부딪치는 道德觀念에도 責任이 附與되지 않고 自然스럽게 그 表現이 驅使되고 있다.

이러한 本質的 差異는 話者와 聽者의 關係에서 볼 때 傳說是 이야기에 對해 은연중 信憑性을 強要하고 있지만 옛말에는 이런 無理한 要求를 負擔시키지 않는다. 옛말이 지니는 文學世界的 優越性이 높기 評價되어야 하는 理由는 적어도 原始的인 空想의 成果로 庶民들 사이에서 口口傳承하면서 다듬어지는 共同創作의 所産때문이라 하겠다.

以上에서 傳說과 옛말은 그 內容, 性質, 形式의 差異에서 嚴然히 區分되며 옛말의 文學的 優越性을 알 수 있다고 본다.

Ⅱ 옛말의 範圍와 그 本質

Ⅱ章에서 옛말과 傳說과의 差異點에서 內容上的 本質이나 表現方式을 比較했다.

여기서는 옛말部分만을 다시 敷衍하여 形式面에서 보는 本質을 說明하고 그 文學性을 더 追究해 보기로 한다.

옛말은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구애됨이 없어 歷史的 時代나 場所 그리고 登場人物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發生年代나 發生한 場所 그리고 最初로 이야기를 엮은 〈이야기군〉의 이름조차 推斷하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情緒的인 興趣를 돋구는 이 詩的인 語彙들

과 그 雰圍氣는 너무나 叙事的 詩情을 빚어준다. 거의가 그 〈이야기군〉은 동네의 老婆나 집안의 할머니여서 더욱더 그 雰圍氣를 造成해 준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淳朴溫厚한 그대로의 經驗을 通하여 이루어진 作爲가 약간 곁들여 있어 언제나 娛樂本位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作爲란 原型계의 變質을 가져오지 않는 意味가 附與되어 있다.

옛말에는 一定한 型이 있다. 그것을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의 序頭는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는……〉

〈호랑이 담배 피우든 고래적에……〉

〈옛날 옛날……〉

〈머언 옛날……〉

〈한 옛날에……〉

로 始作되며 末尾에서도 역시 話者나 聽者가 한결같이 그 信憑性에 對한 責任이나 負擔을 意識的으로 避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그런데 잘 살았단다〉

〈……언제 죽었는지 몰라도 나에게 제삿밥 가져 왔었서〉

〈……잘 살다 죽었단다〉 등을 例擧할 수 있다.

이렇게 時間性, 空間性, 眞實性, 信憑性을 求하지 않는대로의 文學的 所産은 原始人의 眞理를 벗어나지 않는 純眞無垢한 空想의 世界를 聯想할 수 있는 領域을 갖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옛말은 한 마디로 말해서 文學以前(古代小說과의 關係에서도)의 文學이다. 그것은 形式 以前의 形式 속에 自由自在로운 表現 구사를 通하여 口口傳承되어 由來해온 것이다. 無名의 옛말의 作者는 훌륭한 文學的 才能을 所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班固의 「街談巷說道聽塗說者之所造也」를 빌리지 않더라도 足한 것이다.

말하고 듣는 이 옛말文學은 表記定着 以前의 口傳文學은 「傳奇叟」에 의하여 옮겨졌던 것이다. 그 管理는 모두가 農漁民의 共有이며, 특히 農漁村婦女子의 口에서 傳播된 것이다. 그러나 個個의 옛말은 消滅, 新生, 加減되는 過程을 거칠지라도 옛말은 모두 그 叙述이 짧고 形式이 單純하다. 그러나 그것이 짧고 單純하다고 하는 것은 그 內容面의 單純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數萬 數十萬字로 엮어진 純文藝形式과 비기면 옛말은 말 수는 적지만, 그 한 마디 한 마디에는 한없는 內容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低俗하다는 先入感으로 보기 때문에 充分히 그 內容을 透徹하여 理解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옛말은 發端에서부터 結末에 이르기까지 一定한 構造形式을 갖추고 있으며, 그 표현도 隱喻, 對句, 擬人法등 재치있는 修辭로써 짜여져 있어 素朴 單純속에서도 庶民文學의 香趣를 풍겨준다. 또 그것은 方言과 그 方言에 곁들여진 地方色으로 해서 地域社會 研究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問題點도 惹起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土着民의 生活의 반영, 土着

信仰狀況이 은근히 暗示되어 一般化 되어 있으며 禁忌, 諺, 警句 등이含蓄되어 있는 淳朴한 요소를 하나의 픽션으로 가져간 文學形式이다.

그러므로 해서 個個의 옛말은 自然히 農民의 呼吸 속에서 保存되어 成長했고 그 消滅을 막기爲해 그 構造 역시 精巧하고 複雜하게 꾸며 있어 原始人 속에서 보다더 高度의 文學性으로 차츰 차츰 近代化의 물결을 타고 다듬어졌던 것이다.

오랜 時間의 흐름에 따라 그 口傳은 成人 對 成人에서 成人 對 兒童, 다시 말해서 高齡의 婦女子 對 兒童으로 그 授受關係가 俗化되면서 近代化된 成人의 社會에서 輕蔑의 대상이 되면서 高度의 文學性이 요구되었다.

그렇지만 그 保存은 都市人보다 淳朴한 農民들 사이에 끈기 있게 存續되고 있다. 그러나 文明度에 依한 時間性의 制約 때문에 口傳이라는 短命한 理由에서 그 加減된 部分이 있다는 것을 다음 實例로 推斷할 수 있다고 본다.

三國史記 卷 第四十五 列傳 第五 溫達說話條에 記載되어 있는 類型의 說話가 口傳으로 傳하는 것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옛날 한 임금의 딸을 셋 두었는데 하루는 임금이 딸 셋을 모아 놓고 묻되 너희들은 뉘 북으로 사느냐고 하였더니 큰딸과 둘째딸은 부왕의 북으로 사나이다 했으나 막내 딸만은 제 북으로 산다고 했다. 임금은 노발대발 하며 제 북대로 산다는 막내딸을 미워한 나머지 네 북대로 살라 하여 부왕에게 쫓겨났다. 그래서 고진감래로 남편을 얻어 잘 살았단다는데 남편이 바보라고 하더라」

이 口傳說話는 三國史記에 記載된 溫達說話보다 「그말은 쫓겨나서 온달과 같은 남편을 얻어 잘 살았다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어려서 몹시 운다고 弄談으로 한 것을 「王者는 戲言이 없다」 하고 未婚前에 미리 守節을 한다는 것이 烈을 지나치게 勸獎함이었고 公主가 溫達을 指導하여 戰死까지 하였다는 것이 孝와 忠을 또한 意味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이 說話는 儒敎의 三綱義理를 너무 附會하여 譎濫한 점이 있는 것이 缺陷이다. (國文學全史 李秉岐: 白 鐵共著 p. 54)

옛말에서는 이런 缺陷 같은 것을 止揚하고 幸福한 結婚, 富의 獲得 등 그 結果를 素朴하고 自然스럽게 맺어 나간다.

이런 結末에 이끄는 過程에 있어 決定的인 것은 어떻게 하면 人生 目的에 到達해질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到達되었는가 하는 淳朴溫厚한 道德觀 그대로 宜當해 버린 感情의 判決이다. 이는 事件을 하나의 形式 속에서 淳朴溫厚한 倫理的 結論이 要求되도록 秩序整然하게 展開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말에는 우리들의 세간살림 중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事件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과 단순히 非道德的이라고 느껴지는 現實과 感然히 맞선다.

학대, 誤解, 過失, 羈포를 決定的인 단계에까지 차츰차츰 끌어올리고, 그 淳朴溫厚한 도덕에 依해 解決되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옛말에는 不正이라고 느껴지고 非道德的이라고 느껴지는 現實을 外面하고 가난, 바보, 어련에처럼 보일만큼 純眞性이 결들여져 있다. 너무나 宿命的인 게 구멍받이나 庶子에 대한 학대, 애인과의 이별같은 一切의 原始的인 悲劇을 極限狀況까지 올려 놓고 末尾의 解決을 原始感情에서 判決하고 새로운 方向感覺을 提示해 준다.

이것이 옛말에 있어서의 新生을 意味하는 것이다. 옛말에서는 구태어 現實의 事件과 比較할 必要는 거의 없다. 그럼으로 新生은 옛말의 世界에서는 新生이라 할 수 없는 너무나 普遍妥當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옛말은 「옛날 옛적 어느 곳에……」 등이라고 그 말머리가 始作된다. 現實과 동떨어진 장소와 某年 某時로 이루어져 나간다. 登場人物 역시 非情의 現實을 파피하는 무한한 實力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原始人들 사이에서는 奇跡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妖鬼는 悲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려는 힘은 자못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 論述한 옛말의 本質面에서 文學性의 有無를 가려 내었다. 그것을 要約하여 간추리면 옛말은 그것을 말하는 話者에 있어 文學的인 新生觀이 無意識中에 담겨져 있으므로 原始的인 空想의 極限狀況을 이루는 훌륭한 結實이라 하겠다.

Ⅳ 結 語

옛말은 지금까지 論述한 바와 같이 文學의 原始形態의 잔재로서 그 文學의 基本原則을 우리에게 提示해 주고 있는 珠玉 같은 叙事詩의 殘影이다. 國文學에 있어서 특히 散文精神의 素地를 마련해 주는 이 옛말을 어떻게 採錄하고 어떻게 分析 評價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宿題가 우리 앞에 남겨져 있다. 이에 對해서는 이미 歐美 各國이나 가까운 日本에서는 資料의 採錄, 分析, 評價, 研究에 활발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그 消滅을 막지 못하는 實情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國文學史上에서 보면 三國時代 以後 不安스런 狀況下에서 說話文學의 內容의 一部가 作者不明의 손에 依해서 表記된 것이지만 그것은 實로 極少量에 지나지 않다. 古代부터 流布되고 口傳되어온 그 많은 說話가 古代小說에 준 영향은 實로 크다고 본다. 이렇게 說話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古代小說이 口碑的 抒情文學인 辭說時調나 民謡의 內在律에 迎合하는 土俗的이고 庶民風인 方向으로 흘러들어 그것이 唱劇化 되었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現傳하는 作品들이 古代小說인지 唱劇本인지 분간키 어려운 程度로 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廣範圍하게 옛말이 授受結緣한 影響은 자못 크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特定된 地域으로부터 全國 방방곡곡에 걸쳐 다시 더 採錄하고 世界에 分布되어 있는 옛말과 比較研究하여

그 類型의 改變, 또는 模倣, 模創의 方向, 構成形式 等を 考察하며 文學風土의 成長度를 考察하는 데에는 옛말이 지닌 文學的 比重을 定立하기 爲해 不斷한 努力이 必要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宿題로 던져준, 消滅直前に 있는 옛말을 採錄, 整理, 分析, 評價하는 作業을 하루 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옛말을 幼年期의 로맨틱한 映像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眞正한 學問의 對象으로 파악쳐 文學의 成長度를 考察하는 데 이바지 하여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 李秉枝, 白 鐵 著 國文學全史
趙 潤濟 著 國文學概說
周 〇山 著 朝鮮文學史
李 龍雨 著 入門을 爲한 國文學概論
張 德順 著 國文學通論
關 敬吾 著 民話
櫻井德太郎 著 昔なし

— Summary —

An Introductory Study on "Yetmal,"

Shim Yeo-taek

In the circle of Korean literature in Korea, "Seolhwa" or "Mindam" have been used as the concept similar with myth and legend, when they deal with the folk-tale literature, Seolhwa and Mindam have been used as the equivalent to the European "folk-tale", and, "Märchen" respectively. But in my opinion, it will be more reasonable that we use the new term "Yetmal" as the genre alike to myth and legend, and use "Seolhwa" as the higher conception.

"Yetmal" includes folktale achieved through our people's long life, but its category is narrower than that of Märchen,

By the way "Yetmal-lyagi"(ancient story) should be used as the term including above-mentioned three genres and written "Yadam".

It can be said that "Yetmal" is a fiction that people made as a kind of avocation together. It is an epic literature which has an appointed prologue, epilogue and structure and in which common people express their emotion and view on morality, in a plain style.

From the Korean literary point of view, "Yetmal" is the form of old epic literature, and it has had influence upon the making of Yi Dynasty novels and "Pansori".

Therefore we must collect, analyze and study "Yetmal" as an object of literature in order to make it clear that Yetmal has literary-historical value.